

대 중 화 문 고
중 한 대 역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儒林外史

유림외사

Ⅲ

湖南人民出版社
호남인민출판사
外文出版社
외국문출판사
延边人民出版社
연변인민출판사

大中华文库

漢韓對照

대중화문고

중한대역

儒林外史

유림외사

Ⅲ



[清]	吴敬梓	著
金宽雄	金晶银	韩译
[淸]	오경재	저
김관웅	김정은	한역

湖南人民出版社
호남인민출판사
外文出版社
외국문출판사
延边人民出版社
연변인민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儒林外史: 汉韩对照 / (清)吴敬梓 著; 金宽雄, 金晶银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1

(大中华文库)

ISBN 978-7-5449-0449-0

I. 儒… II. ①吴…②金…③金…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章回小说-中国-清代 IV.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8)第181503号

策划编辑: 朴宇

汉文责任编辑: 聂双武 戴茵

审校: 宁一中

韩文责任编辑: 南尚铉

大中华文库

儒林外史

吴敬梓 著

金宽雄, 金晶银 韩译

出版发行者:

湖南人民出版社(中国湖南省长沙市银盆南路78号) 邮政编码: 410006

外文出版社(中国北京市百万庄大街24号) 邮政编码: 100037

延边人民出版社(中国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邮政编码: 133000

印制者:

深圳市佳信达印务有限公司

开本: 960×640 1/16(精装) 印张: 88 印数: 1500 字数: 1360千字

2008年第1版第1次印刷

(汉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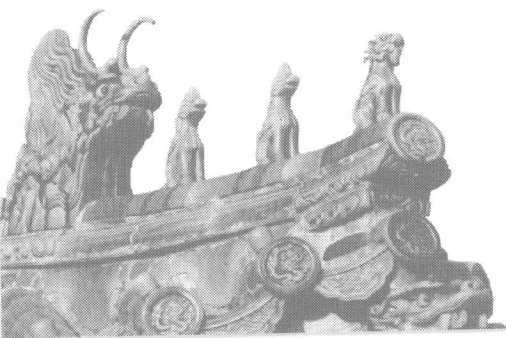
ISBN 978-7-5449-0449-0

값 40,000원 (전3권)

版权所有 盗版必究

目 录

- | | |
|-------------------|------------------|
| 第三十五回
圣天子求贤问道 | 838
庄征君辞爵还家 |
| 第三十六回
常熟县真儒降生 | 860
泰伯祠名贤主祭 |
| 第三十七回
祭先圣南京修礼 | 884
送孝子西蜀寻亲 |
| 第三十八回
郭孝子深山遇虎 | 908
甘露僧狭路逢仇 |
| 第三十九回
萧云仙救难明月岭 | 930
平少保奏凯青枫城 |
| 第四十回
萧云仙广武山赏雪 | 952
沈琼枝利涉桥卖文 |
| 第四十一回
庄濯江话旧秦淮河 | 976
沈琼枝押解江都县 |
| 第四十二回
公子妓院说科场 | 1000
家人苗疆报信息 |
| 第四十三回
野羊塘将军大战 | 1022
歌舞地酋长劫营 |
| 第四十四回
汤总镇成功归故乡 | 1046
余明经把酒问葬事 |



차 례

제 35 회	839
성천자가 현명한 선비를 불러서 왕도를 묻고 장징군이 벼슬을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제 36 회	861
상숙현에 참된 유생이 태어나고 태백사 제사에 명현이 제주가 되다	
제 37 회	885
선성을 남경에서 제사 지내어 예를 닦고 효자를 서촉으로 보내어 아버지를 찾게 하다	
제 38 회	909
곽 효자가 심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고 감로암 중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다	
제 39 회	931
소운선이 명월령에서 사람 목숨 구하고 평소보가 청풍성에서 승전가를 울리다	
제 40 회	953
소운선이 광무산에서 설경을 구경하고 심경지가 이섭교에서 글을 팔다	
제 41 회	977
장탁강이 진회하에서 지난 일을 그리고 심경지가 강도현으로 압송되어 가다	
제 42 회	1001
귀공자가 기생집에서 과거시험을 거론하고 하인이 묘족 땅에서 소식을 전해오다	
제 43 회	1023
야양당에서 장군은 크게 싸우고 군사를 변장시켜 추장은 군영을 기습하다	
제 44 회	1047
탕 진대는 전공을 세우고 환향하고 여명경은 술상에서 상사를 묻다	



第四十五回 1068
敦友谊代兄受过 讲堪輿回家葬亲

第四十六回 1090
三山门贤人饯别 五河县势利薰心

第四十七回 1116
虞秀才重修元武阁 方盐商大闹节孝祠

第四十八回 1140
徽州府烈妇殉夫 泰伯祠遗贤感旧

第四十九回 1162
翰林高谈龙虎榜 中书冒占凤凰池

第五十回 1182
假官员当街出丑 真义气代友求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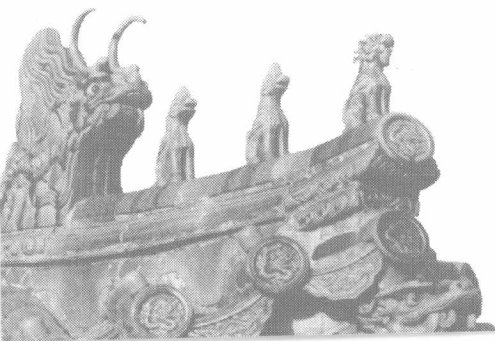
第五十一回 1200
少妇骗人折风月 壮士高兴试官刑

第五十二回 1216
比武艺公子伤身 毁厅堂英雄讨债

第五十三回 1238
国公府雪夜留宾 来宾楼灯花惊梦

第五十四回 1258
病佳人青楼算命 呆名士妓馆献诗

第五十五回 1286
添四客述往思来 弹一曲高山流水



제 45 회 1069
동기간의 정이 깊어 형을 대신해 송사를 감당하고
묘소를 의논하여 집에 돌아가 부모의 장사를 지내다

제 46 회 1091
삼산문에서 현인은 이별을 슬퍼하고
오하현 사람들은 금전과 권세를 따르다

제 47 회 1117
우 수재가 원무각(元武閣)을 새롭게 수선하고
방 염상이 절효사(節孝祠)에서 복새를 놓다

제 48 회 1141
취주부에서 열너는 남편 따라 순사하고
태백사에서 유현은 옛날을 회억하다

제 49 회 1163
한림은 용호방(龍虎榜)을 의논하고
중서는 봉황지(鳳凰池) 사람으로 사칭하다

제 50 회 1183
가짜 관원은 거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진짜 의사는 친구의 명예를 되살려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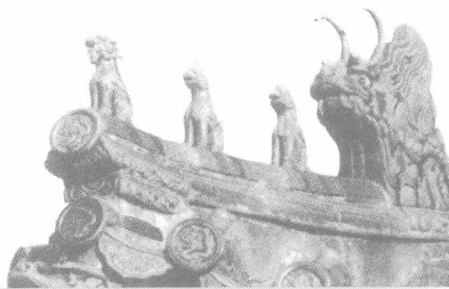
제 51 회 1201
젊은 계집이 정사로 사내를 속이려다 실수하고
장사는 흥난 김에 관가에서 형벌을 받아 보다

제 52 회 1217
호 공자는 무예를 비기다가 몸을 크게 다치고
영웅은 가게를 들부수어 빛을 받아내다

제 53 회 1239
국공부의 공자는 설야에 손님을 청하고
내빈루의 빙랑은 밤중에 꿈에 놀라다

제 54 회 1259
병약한 기생은 청루에서 운명을 점치고
명칭한 명사는 기생에게 시를 바치다

제 55 회 1287
네 손님을 모셔 어제와 내일을 얘기하고
지기를 만나 거문고 한 곡을 타다



第三十五回

圣天子求贤问道 庄征君辞爵还家

话说庄征君看见那人跳下骡子，拜在地下，慌忙跳下车来跪下，扶住那人，说道：“足下是谁？我一向不曾认得。”那人拜罢起来，说道：“前面三里之遥便是一个村店，老先生请上了车，我也奉陪了回去，到店里谈一谈。”庄征君道：“最好。”上了车子。那人也上了骡子，一同来到店里。彼此见过了礼坐下。那人道：“我在京师里算着征辟的旨意到南京去，这时候该是先生来的日子了，所以出了彰仪门，遇着骡轿车子，一路问来，果然问着。今幸得接大教。”庄征君道：“先生尊姓大名？贵乡何处？”那人道：“小弟姓卢，名德，字信侯，湖广人氏。因小弟立了一个志向，要把本朝名人的文集都寻遍了，藏在家里。二十年了，也寻的不差甚么的了。只是国初四大家，只有高青邱是被了祸的，文集人家是没有，只有京师一个人家收着。小弟走到京师，用重价买到手，正要回家去，却听得朝廷征辟了先生。我想前辈已去之人，小弟尚要访他文集，况先生是当代一位名贤，岂可当面错过？因在京候了许久，一路问的出来。”庄征君道：“小弟



제 35 회

성천자가 현명한 선비를 불러서 왕도를 묻고
장정군이 벼슬을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장정군은 그 사람이 나귀에서 뛰어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급히 수레에서 내려 무릎 꿇고 “누구신지요? 전에 뵈 적이 없는데요.”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여 일으켰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다. “삼리가랑 가면 주막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수레에 올라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막에 가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장정군은 다시 수레에 올랐다.

그 사람도 나귀를 탔다. 함께 주막으로 와서 서로 인사하고 좌정한 뒤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경사에서 천자님이 부르시는 성지가 남경에 닿을 날짜를 꼽아보고 오늘이 선생님이 오실 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의문(彰儀門)을 나와 길에서 나귀 모는 사람이나 교군이나 수레를 모는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물으며 오던 중에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행운이옵시다.”

장정군이 물었다. “성함은 어떻게 쓰고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제 성은 노(盧), 이름은 덕(德), 자는 신후(信侯)라 하며 호광 사람이옵시다. 저는 본조 명인의 문집을 널리 구해서 빠짐없이 모아보려는 뜻을 세우고 스무 해 동안에 이젠 거의 다 모았는데 단지 본조 초기의 사대가(四大家)¹⁾ 중 고청구만은 화를 입은 분인 까닭에 그 문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경사에 단 한 사람 그 문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사까지 찾아와서 이번에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불일을 다 보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에 조정에서 선생님을 부르신다는 소식이 들리더이다. 그래 이미 고인이 되신 선배어른들의 문집도 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찌 선생님 같은 당대의 첫손 꼽히는 명현을 만나 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경사에서 내쳐 기다리다가 이렇게





坚卧白门，原无心于仕途，但蒙皇上特恩，不得走来一走。却喜邂逅中得见先生，真是快事！但是我两人才得相逢，就要分手，何以为情。今夜就在这店里权住一宵，和你连床谈谈。”又谈到名人文集上。庄征君向卢信侯道：“像先生如此读书好古，岂不是个极讲求学问的？但国家禁令所在，也不可不知避忌。青邱文字，虽其中并无毁谤朝廷的言语，既然太祖恶其为人，且现在又是禁书，先生就不看他的著作也罢。小弟的愚见，读书一事，要由博而返之约，总以心得为主。先生如回贵府，便道枉驾过舍，还有些拙著慢慢的请教。”卢信侯应允了。次早分别，卢信侯先到南京等候。

庄征君进了彰仪门，寓在护国寺。徐侍郎即刻打发家人来候，便亲自来拜。庄征君会着。徐侍郎道：“先生途路辛苦？”庄征君道：“山野鄙性，不习车马之劳，兼之‘蒲柳之姿，望秋先零’，长途不觉委顿，所以不曾便来晋謁，反劳大人先施。”徐侍郎道：“先生速为料理，恐三五日内就要召见。”这时是嘉靖三十五年十月初一日。过了三日，徐侍郎将内阁抄出圣旨送来。上写道：

“十月初二日，内阁奉上谕：朕承祖宗鸿业，寤寐求贤，以资治道。朕闻师臣者王，古今通义也。今礼部



물으며 왔습니다.”

“나는 백문(白門-남경)에 들어앉아 벼슬길에 뜻을 두어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천자님의 각별한 은전을 입은 까닭에 부득이 경사로 걸음을 아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선생을 이처럼 만나 뵈게 된 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자 이별하게 되는 건 또 너무나도 섭섭합니다. 우리 오늘밤 이 주막에 같이 묵으며 배개를 나란히 하고 얘기나 나눕시다.”

화제가 다시 명인의 글로 옮겨지자 장정군이 노신후에게 말했다.

“선생이 것처럼 고서를 좋아하는 것은 학문을 깊이 연찬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라에서 금하는 것은 역시 피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 문집에 비록 조정을 비난하는 글은 없지만 태조께서 그 위인을 미워하고 더구나 현재 금서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의 저작을 보시려 할 건 뭘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에는 독서란 널리 읽고 그 뜻이 집약되면서 머리속으로 돌아오고 어디까지나 심득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시면 변변치 못하나마 책을 몇 권 지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 천천히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노신후가 응낙했다. 이튿날 아침에 작별하고 노신후는 먼저 남경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장정군은 창의문으로 들어가 호국사에 거처를 정했다. 서 시랑이 즉시 하인을 보내어 문안하고 이어 또 친히 찾아왔다. 장정군이 나와 맞자 서 시랑이 인사를 했다.

“선생, 길에서 노고가 많으셨지요.”

“시골에 살아온 사람이라서 수레와 기마에 치여 나지 않은데다가 또 워낙 ‘포류(蒲柳)의 질(質)’로 남달리 허약한 체질입니다. 그래 먼 길을 오느라고 곤기가 나서 문안도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대감께서 이처럼 먼저 찾아주시니 죄송스럽소이다.”

“선생님, 서둘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사날 내로 천자님을 조현(朝見)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가정 삼십오 년 시월 초하루. 사흘 후 서 시랑이 내각(內閣)에서 베껴낸 성지를 보내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시월 초이튿날, 내각은 다음과 같은 상유(上諭)를 받들었다.

짐은 조정의 홍업(鴻業)을 이어받아 오매에도 현명한 사람을 구하여



侍郎徐基所荐之庄尚志，着于初六日入朝引见，以光大典。钦此。”

到了初六日五鼓，羽林卫士摆列在午门外，卤簿全副设了，用的传胪的仪制，各官都在午门外候着。只见百十道火把的亮光，知道宰相到了。午门大开，各官从掖门进去。过了奉天门，进到奉天殿，里面一片天乐之声，隐隐听见鸿胪寺唱：“排班。”净鞭响了三下，内官一队队捧出金炉，焚了龙涎香，宫女们持了宫扇，簇拥着天子升了宝座，一个个嵩呼舞蹈。庄征君戴了朝巾，穿了公服，跟在班末，嵩呼舞蹈，朝拜了天子。当下乐止朝散。那二十四个驮宝瓶的象，不牵自走，真是：“花迎剑佩星初落，柳拂旌旗露未干！”各官散了。

庄征君回到下处，脱去衣服，徜徉了一会，只见徐侍郎来拜。庄征君便服出来会着。茶罢，徐侍郎问道：“今日皇上升殿，真乃旷典。先生要到寓静坐，恐怕不日又要召见。”过了三日，又送了一个抄的上谕来：

“庄尚志着于十一日便殿朝见，特赐禁中乘马。钦此。”

到了十一那日，徐侍郎送了庄征君到了午门。徐侍郎别过，在朝房候着。庄征君独自走进午门去。只见两个太监，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노라. 짐이 듣건대 신하를 스승으로 섬기는 자가 왕이 됨은 고금에 통하는 대의(大義)라 하더라. 이에 예부시랑 서기(徐基)가 천거한 장상지는 옛날에 입조(入朝)하라. 인견(引見)함으로써 대전을 빛내리라. 이를 준수할지어다.

옛날 오경머리에 우림위사(羽林衛士)가 오문(午門)밖에 정렬하고 천자의 의장(儀仗)이 갖추어졌다. 전로의 의제(傳臚儀制)²⁾대로 백관이 모두 오문 밖에 대기했다. 백여 자루의 햇불이 환히 밝혀졌다. 재상이 도착한 것이다. 오문이 활짝 열리자 백관이 협문으로 들어갔다. 봉천문(奉天門)을 지나서 봉천전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천상의 현악소리가 나며 홍로사경(鴻臚寺卿)³⁾이 지휘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배반!(排班)”

정편(淨鞭)⁴⁾이 세 번 울리자 내관(內官)이 용연향을 피운 금향로를 받들고 한 패 한 패 차례로 나온다. 천자가 궁선(宮扇)을 든 궁녀들에게 웅위되어 나와서 용상에 오른다. 백관이 만세를 삼창하면서 두 손을 위로 뻗치고 발을 굴렀다. 장정군이 조건(朝巾) 쓰고 예복 입고 서렬(序列)끝에 따라섰다가 만세를 삼창하면서 두 손을 위로 뻗치고 발을 구르고 나서 천자님을 배알했다. 이어 풍악소리가 그치고 조희가 끝났다. 등에 보병(寶瓶)을 얹은 스물네 마리의 코끼리가 고삐 잡은 사람도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그야말로 “꽃이 검패(劍佩)를 맞으니 별이 처음으로 떨어지고, 버들이 정기(旌旗)를 스치니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도다.” 이런 장관이었다. 이윽고 만조백관이 퇴조했다.

장정군이 사처에 돌아와서 평복차림을 하고 한동안 하는 일 없이 얼쩡거리고 있는 데 서 시랑이 인사하러 왔다. 장정군이 평복차림으로 나와 맞았다. 차를 마신 뒤에 서 시랑이 “오늘 폐하의 승전(升殿)은 참으로 보기 드문 성대한 전례(典禮)였습니다. 선생은 사처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시오. 불일간 알현하라는 특별 칙지가 내릴 것 같습니다.”하고 알려주었다.

사흘 후에 또다시 ‘장상지는 열하루 날에 편전에서 알현하라. 특히 자금성 안에서의 승마(乘馬)를 윤택한다⁵⁾. 이를 준수하라.’라는 베껴낸 성지가 전달되었다.

열하루 날이 되었다. 서 시랑이 오문까지 장정군을 안동했다. 거기서 헤어져 서 시랑은 조방(朝房)⁶⁾에 들어가 기다리고 장정군만 혼자서 오문으로 들어갔다. 태감 둘이 어용마(御用馬)를 한 필 끌고 와서



牵着一匹御用的马，请庄征君上去骑着。两个太监跪着坠蹬。候庄征君坐稳了。两个太监笼着缰绳，那扯手都是赭黄颜色，慢慢的走过了乾清门。到了宣政殿的门外，庄征君下了马。那殿门口又有两个太监，传旨出来，宣庄尚志进殿。庄征君屏息进去，天子便服坐在宝座。庄征君上前朝拜了。天子道：“朕在位三十五年，幸托天地祖宗，海宇升平，边疆无事。只是百姓未尽温饱，士大夫亦未见能行礼乐。这教养之事，何者为先？所以特将先生起自田间，望先生悉心为朕筹画，不必有所隐讳。”庄征君正要奏对，不想头顶心里一点疼痛，着实难忍，只得躬身奏道：“臣蒙皇上清问，一时不能条奏，容臣细思，再为启奏。”天子道：“既如此，也罢。先生务须为朕加意。只要事事可行，宜于古而不戾于今罢了。”说罢，起驾回宫。庄征君出了勤政殿，太监又笼了马来，一直送出午门。徐侍郎接着，同出朝门。徐侍郎别过去了。

庄征君到了下处，除下头巾，见里面有一个蝎子。庄征君笑道：“臧仓小人，原来就是此物！看来我道不行了！”次日起来，焚香盥手，自己揲了一个蓍，筮得“天山遁”。庄



장정군에게 타라고 권하고 끓어앉아 등자를 잡았다. 장정군이 말위에 바로 앉기를 기다려서 태감이 말고삐를 잡는데, 보니 고삐가 모두 자황색이었다. 천천히 건청문(乾淸門)을 지나 선정전(宣政殿)문 앞에 닿아 장정군은 말에서 내렸다. 선정전 문 앞에 또 태감 둘이 나와서 “장상지는 전내에 들라.”고 성지를 전했다.

장정군이 숨을 죽이고 전내에 들어가니 천자가 평복 차림을 하고 보좌에 앉아 있었다. 장정군이 앞으로 나서서 조배하자 천자가 입을 열었다.

“짐이 재위한 삼십오 년 동안에 다행히 천지 조종의 덕택으로 해내가 태평하고 변강이 무사하나 오직 백성들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지를 못하고 사대부 또한 예악을 행하지 못하는 형편이오. 이를 교화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래서 선생을 전간(田間)에서 불러 올린 것이오. 선생은 짐을 위해 세심하게 방도를 생각하고 감춤이 없이 그 방책을 짐에게 알려주기 바라오.”

장정군이 막 주상을 하려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정수리가 따끔 아팠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지경인지라 부득이 국궁하고 아뢰었다.

“신이 폐하의 하문을 받자옵고 갑자기 조리 있게 주상하기 어렵사오니 신으로 하여금 심사숙려 후 다시 주상하도록 여유를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종도록 하오. 선생은 아무쪼록 짐을 위하여 깊이 생각해 주오. 단지 옛 도리에 비추어 마땅하고 지금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일마다 시행할 수만 있으면 그만이오.”

말을 마치고 천자는 기가(起駕)하여 환궁했다. 장정군이 근정전을 나오니 태감이 다시 말을 끌고 와서 오문까지 바래주었다. 서 시랑이 맞아서 함께 대궐문을 나왔다. 서 시랑은 거기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장정군이 거처에 돌아와서 두건을 벗어보니 안에 전갈 한 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것을 본 장정군은 쓴 웃음을 짓고 중얼거렸다.

“허허, 장창소인(臧倉小人)⁷⁾이 바로 네놈이었구나! 보매 내 도가 행해지기는 틀렸나보다!”

이튿날 일어나는 길로 분향하고 손을 씻고 손수 시초(蓍草)를 집어 보니 그 나온 점괘가 ‘천산(天山)에 가서 숨음’이었다. 장정군은 “아무렴, 그렇겠지!” 하고 교화에 관한 열 가지 제의를 쓴 뒤에 다시 ‘환향



征君道：“是了。”便把教养的事，细细做了十策。又写了一道“恳求恩赐还山”的本，从通政司送了进去。自此以后，九卿六部的官，无一个不来拜望请教。庄征君会的不耐烦，只得各衙门去回拜。大学士太保公向徐侍郎道：“南京来的庄年兄，皇上颇有大用之意，老先生何不邀他来学生这里走走？我欲收之门墙，以为桃李。”侍郎不好唐突，把这话婉婉向庄征君说了。庄征君道：“世无孔子，不当在弟子之列。况太保公屡主礼闱，翰苑门生不知多少，何取晚生这一个野人？这就不敢领教了。”侍郎就把这话回了太保，太保不悦。

又过了几天，天子坐便殿，问太保道：“庄尚志所上的十策，朕细看，学问渊深。这人可用为辅弼么？”太保奏道：“庄尚志果系出群之才，蒙皇上旷典殊恩，朝野胥悦。但不由进士出身，骤跻卿贰，我朝祖宗，无此法度，且开天下以幸进之心。伏候圣裁。”天子叹息了一回，随教大学士传旨：

庄尚志允令还山，赐内帑银五百两，将南京元武湖赐与庄尚志著书立说，鼓吹休明。



할 수 있도록 윤희해 주시옵소서’하는 청원서를 써서 통정사를 통하여 상주했다.

이로부터 구경육부(九卿六部)의 고관치고 가르침을 받으러 오지 않는 이가 없어서 장정군은 일일이 만나기가 성가실 지경이었다. 하는 수 없이 각 아문으로 답례방문을 갔다. 대학사 태보공이 서 시랑에게 “남경서 온 장씨를 폐하께서는 높이 쓰실 의향이신데 시랑이 수고스럽지만 장씨를 내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주시지 않겠소? 담장 안의 도리(桃李)⁸⁾로 삼고자 하는데.”하고 청을 들었다.

서 시랑이 실례가 될까봐 조심조심 태보공의 의사를 돌려서 비쳐본즉 장정군은 대변에 “이미 공자(孔子)님이 안 계신 오늘 제자의 반열에 서는 건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태보공께선 늘 과거시험을 주관하시는 까닭에 한림의 문하생이 부지기수인데 만생 같은 일개 야인(野人)을 구태여 취하실 건 무엇입니까? 감히 그 청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하고 거절했다.

서 시랑이 장정군의 대답을 옮긴즉 태보공은 듣고 몹시 불쾌해 했다. 다시 며칠 지나서 천자가 편전에 나와 앉아 태보공에게 “장상지가 올린 열 가지 건책을 짐이 자세히 읽어 보니 그 학문이 매우 심원한데 그 사람에게 보필지임(輔弼之任)을 맡김이 어떠하오?”하고 하문하였다.

“장상지는 과연 뛰어난 재질을 가졌사옵니다. 금번 폐하께옵서 성대한 전례로 그 사람을 인견하시고 각별한 은전을 베푸신 것을 조야(朝野)가 모두 기뻐하는 바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진사출신이 아닌 인재를 일약 구경(九卿) 벼금의 근신으로 등용하심은 아조(我朝)조정에 일찍 그러한 전례가 없었나이다. 이는 자칫하면 천하에 요행으로 영달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쉽사옵니다. 성단을 바라옵나이다.”

태보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 천자가 못내 탄식하고 이어 대학사를 시켜서 성지를 전했다.

장상지에게 환향을 윤희한다. 내탕금 은 5백 냥을 하사한다. 남경 원무호를 사여한다. 저서입설(著書立說)하여 성세(聖世)를 찬미하도록 하라.

성지를 받은 장정군이 다시 오문에 이르러 사은한 뒤 서 시랑과 작별했다. 사처에 돌아와 행장을 꾸려 남경 길에 올랐다. 만조백관이 모두 나와 배웅했다. 장정군이 모두에게 인사하고 올 때처럼 수레를 한